#### 월요광장



임몽택 미네르바 코칭앤컨설팅 대표 전 광주대 경영학과 교수

마을 어귀에는 서당이 있었다. 그곳에는 연세가 많 으신 훈장님이 계셨고, 훈장님의 회초리는 단순히 공 부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 아니라 삶의 예의와 도리를 일깨워주는 '죽비'였다. 훈장님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마을에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면 이를 중재하는 재판관이었고, 혼 사를 앞둔 젊은이에게는 부부의 도리를 일러주는 멘토 (Mentor)였으며,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회의의 의장이었다. 한 마디로 훈장님은 마을의 '어른'이었

그러나 요즘은 훈장님 보기가 어렵다. 나이 많은 사 람은 많은데 '훈장감'이 별로 없는 것이다. 마을 어디를 가도 훈장님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노욕을 버리지 못 하고 침을 바르는, 목소리만 큰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 다.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사라진 세상, 개인이나 나라 가 길을 잃고 헤매면 누구를 찾아야 하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로 구분했다. 크로노스란 우리가 일 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즉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 래로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다.

# 어른이 사라진 세상

반면 카이로스란 '바로 그때', '결정적 순간'과 같이 특 별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시간이다. 흐르는 강물을 타고 내려가다가 '송어'를 발견하고 낚아채는 순간처 럼 크로노스의 흐름을 뚫고 들어오는 의미의 순간이

'노인'이 되는 것은 크로노스의 결과다. 살아 있기만 하면 누구나 도달하는 상태로 존재의 한 단계이며 수동 적이다. 따라서 '노인'이 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나 성 취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에 '어른'이 되는 것은 카이로 스의 결과다. '어른'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것 이 아니라 순간, 순간의 경험을 통해 지혜와 통찰을 얻 고 내면적으로 성숙해야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른'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 타인에 대한 공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통해 스 스로 지위를 획득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노인'과 '어른'을 구분하는 척도는 그 사람의 삶의 깊 이와 인격의 성숙도다. 그 안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 내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포함 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 노인은 차고 넘치는데 어른 찾기가 어려 운 이유는 무엇일까? 노인은 그냥 살아 있기만 하면 되 지만 어른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려면 깨어 있는 의식과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크로노스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다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순간을 포 착하고 카이로스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전 체코 대통령 바츨 라프 하벨의 말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라는 문구 정 도는 인지하고, 자신이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통찰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나랏

돈을 무려 1인당 연간 8억 원이나 쓴다는 여의도 300 명 '나리' 중에 '불가능의 예술'이 무엇인가를 통찰하 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게다가 20년도 넘 게 의원을 한 다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나, 2년도 채 안 된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나 모두 도긴 개긴이 여의도에 어른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어른이 되려면 과거를 경험이 아닌 지혜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나 때는~'을 버리고 과거의 경험을 끊임 없이 되새기고 성찰하여 삶의 보편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것을 후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르치고 지시하려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에서 새로운 지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권 위를 앞세워 구태(舊態)를 고집한다면 어른이 되기 어 렵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급변하는 기 술과 문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모르는 것 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질문하는 겸손함을 보일 때 비로 소 어른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어른이 되고 싶으면 수시로 자 신에게 물어야 한다. "지나간 시대의 경험으로 만들어 진 패러다임(생각의 틀)을 시대가 바뀐 지금도 고집하 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 임없이 배우고, 타인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삶에서 마주하는 개인적 책임은 물론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묻고 또 묻고, 살아가면서 계속 물어야 한다.

그리하여, 수확의 계절임에도 황량한 들판에 빈손으 로 외롭게 서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공감하고, 위로 하고, 멘토가 되어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어른'이 되 어야 한다.

### 社說

### 캄보디아 참극이 말해주는 심각한 청년실업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살인 사태의 피해자는 대다수가 청년들이다. 이들은 취업난이나 자영업 실패로 빚에 허덕이다 해외 고수익 일자리에 속아 캄 보디아행을 선택했다 범죄 소굴이란 나락 으로 떨어졌다.

캄보디아 참사는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 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닫게 하고 있 다. 광주•전남에서 캄보디아로 갔던 청년 들도 취업난이나 자영업에 실패해 좌절 속에 선택했다. 여수의 30대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3년 만에 폐업하 고 빚에 쪼들리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로 출국했다. 광주에서도 광산구와 서구 에서 30대 청년들이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탈 출구로 캄보디아행을 선택한 경우다.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아 캄보디아 참사처럼 해외 고수익 알바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 다. 지난해 청년층 취업률은 광주가 38.1%, 전남이 41.2%로 전국 평균 (46.1%)보다 낮은데다 안정적이고 임금

이 많은 정규직과 대기업 일자리가 적어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렇다고 취업 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든 청년들도 높 은 폐업률로 인해 까딱하다간 빚더미에 앉을 우려가 있다. 광주의 폐업률은 11.8%로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로 높은데 지난해에만 광주•전남에서 5만 6000여명이 폐업했다.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된 64 명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이들 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채 보이 스 피싱이나 투자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 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이자 피해 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병주 최고위원은 "청년들이 캄 보디아까지 가게 된 것은 노력만으로 해 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숨어있다"면서 이들을 가해자이면서 피 해자로 규정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참사를 청년실업의 심 각성을 깨닫고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겠다 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흑색선전 난무하는 지방선거 과열 조짐 차단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 돌고 있다고 한다. 김 지사가 내년 국무총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기 과열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투표율 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출 마 예비 후보자 간 근거없는 비방이라면 오히려 선거에 대한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완도를지역구로 둔전남도의원은 자신이 비위 행위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 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유 포되고 있다며 의심되는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이 의원은 2년 전 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 는데 무혐의를 받았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거짓일 겨우 정치판을 떠나겠다는 배수진 을 쳤다.

3선 출마를 공식화 한 김영록 전남지사 에 대해서는 불출마설이 지역 정가에 떠 다.

리 선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란 내 용으로 정가에선 김 지사와 대결이 예상 되는 후보군 측에서 흘렸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광주 남구청장을 겨냥한 불법 현수막은 후보의 이름을 이용해 '현직 청 장은 안되고 특정 후보는 된다'는 내용을 담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전남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독점 구조 탓에 예비 후보들이 본선보다는 민주당 경선 에 올인하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의 결속 력을 다지고 자신의 지명도를 올리기 위 함인데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

민주당은 흑색선전으로 무리를 빚은 후 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규정을 마 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도 선거법 사범에 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

## 수필의 향기



이중섭 소설가

새벽, 잠에서 깨었다. 화장실에 다녀와 시간을 보니 다섯 시 반이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다. 무엇을 하나? 노트북만 올려놓으려 장만한 긴 책상 위에는 잡 다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약 처방전, 재산 세 청구서, 읽다 놓아둔 소설책들이 노트북 주위에 산 만했다.

지금 당장 읽을 만한 책이 있나 책장을 둘러보았다. 책장에 꽂힌 얼굴들이 멀뚱히 나를 쳐다보았지만, 선 뜻 손이 가는 것은 없었다. 이리저리 뒤적이다 책장 안 쪽 책들 틈에서 오래된 제본용 대학 교재를 발견했다. 대학 시절 복삿집에서 팔던 얇은 교재였다. 하늘색 표 지로 코팅된 하인리히 뵐의 짧은 소설이었다.

'오호, 그래, 좋다. 한번 보자.' 책을 빼어 들고 얼른 침대에 누웠다. 작품이 궁금했다. 스마트폰 속 AI에게 제목을 읽어주었다.

"제니! Was soll aus dem Jungen bloß werden 이 무슨 뜻이야?"

오랜 사진 속 연인의 근황을 알고 싶은 것처럼 마음 이 조금 설렜다. 제니가 대답 대신 긴 자료를 좍 긁어와 화면에 펼쳤다. 그다음, 외워 온 것을 읊어대는 것처럼 다다닥다다닥, 말하기 시작했다.

#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잠깐만! 다시 읽을 테니 잘 들어 봐!"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독일어를 발음했다. 그녀는 물어보는 데도 말을 그치지 않고 조잘조잘 읊고 있었 다. 처음 사용하는 AI라 당황스러웠다. 어, 이걸 어떻 게 중단시키고 다시 듣게 하지? 몇 번 버벅거리다 겨우 녀석의 입을 막았다. 이전에도 몇 번 시도했지만 약간 두렵고 어색해 그만두었다. 제니는 내 중얼거림을 듣 고 다시 혼잣말을 죽 기계처럼 읊어댔다.

"혹 독일어이면 어쩌고…."

이 말이 귀에 들렸다. 뭐지? 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 다. 문장으로 써줘 보자. 그러면 확실할 것 같았다. 독일 어로 소설 제목을 입력했다. 그런데 다른 단어는 영어 자판을 써도 되는데 이 blo B의 마지막 글자 B을 써넣 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blo B는 blo만 써넣고 물었다.

제니가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단어 발음이 워스 라니? 워스는 영어잖아? 바스로 읽어야지. 제니는 계 속 워스라 발음하더니 혹 독일어이면 어쩌고저쩌고하 며 씨부렁댔다. 헐, 내가 아무리 독일어를 못한다고 해 도 was를 워스로 발음하다니. 혹 독일어를 공부하던 시간이 너무 흘러 그 시절 우리가 알던 발음이 짝퉁이 었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하지만 분명 바스였다. 문 득, 제니가 독일 소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 으며 당연히 그럴 수 있었다. 정보가 축적되었거나 저 장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천재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이, 때려치우고 이 기회에 독일어 공부나 해볼까, 하며 외국어 회화 앱에 독일어를 추가했다. 기초부터 독일어 회화를 시작했다. 재미있으면서 체계적으로 만 들어 놓았다. 점점 흥미롭고 새로웠다.

창밖을 보니 완전히 날이 밝았다. 옷을 주섬주섬 걸 치고 산책하러 나갔다. 삼십 분쯤 걷다가 집으로 돌아 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보다만 대학 교재 제목을 검색해 보았다.

'그 소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 책들과 관계있는 어 떤 것'은 1933~37년에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여 쓴 하 인리히 뵐의 짧은 소설이다. 이 작가는 1972년 노벨문 학상을 받았다. 한 무고한 여성이 언론의 횡포에 의해 사회로부터 매장되어 가는 과정을 담은 '카타리나 블 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영화화되어 크게 흥행했다고 검색창에 떴다.

그 밑으로 발음 설명이 이어졌다. Was는 '바스'가 맞았다. werden은 '바덴' 으로 나왔다. 엄혹한 1980년 대에 벽돌담 3층 건물 강의실에서 werden을 '베르덴' 으로 당당하게 읽던 시절이 생각났다. 그냥 활자 자체 로만 읽던 시절이었다. 콩글리시란 단어가 떠올랐다. 이에 상응한 독일어는 무엇일지 궁금했다. 독일인들은 뎅글리시라 부르는데 독일어와 영어를 조합해 놓은 단

대학 시절, 캠퍼스 안 자욱한 최루탄 냄새, 공허한 오 후, 인문대 적색 벽돌 건물 강의실, 여자 교수의 카랑카 랑한 발음이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울렸다.

"아인스, 츠바이! 아인스, 츠바이!"

소설 속에서 독일 소년들이 하나, 둘! 하나, 둘! 을 반복하며 열병식을 연습한다. 여자 교수가 아인스, 츠 바이를 외치는 소리가 강의실 안에서 높게 울려 퍼진 다. 하인리히 뵐의 소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다'가 생각나는 침묵의 시대였다.

#### 無等鼓

재판 소원제도

재판 소원제도는 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이 골자다. 법학계에 서는 1990년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해묵은 현안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과 2017년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 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대만 스페인 체코·튀르키예 등지에서도 재판소원을 인 정하고 있다고 사례를 꼽는다.

최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국정감 사에서 한 발언도 헌재의 기본 입장과 다르

하려면 헌재법에 명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不污使)로 인하여 헌

지 않다. 재판소원을 실행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법원 의 재판을 제외하고'만 삭제하면 된다.

대법원은 '헌법에서 재판소원은 허용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에서 허 용하지 않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취 지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위상 실 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환송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 라 다시 재판해야 하는 등 대법의 사법권 행사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판례를 변 경하고 재판 결과를 확정하는 최고 법원 의 역할이 헌재로 넘어간다는 논리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이 진지한 논의를 방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재 판소법 제47조 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를 기속한다'는 조문 해석이 대표적이 다. 헌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변형 결

> 정인 '한정위헌' 판단을 내리면, 대법원은 종종 이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을 불렀다.

민주당이 재판 소원제도 도입을 추진하 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과 관련, 대법원 판단을 불신하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 다. 여야 정쟁에 희석되고 있으나 재판소 원은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현안이다. 여 야가 국민을 중심에 둔다면 해법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

# '진도진수(珍島珍水)' 보배로운 섬, 보배같은 물



고

기

이신제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지사장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역사와 문화가 유서 깊은 보배섬, 진도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섬으로 고려 시대 삼별초의 대몽골 항쟁과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의 격전지로 유명하다. 남종화·진도아리랑·진도씻김굿 등 예술적 전통도 면면히 이어져 온 곳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 많은 이들이 진도를 떠난다. 해마다 500명에 가까운 인구가 줄고 이제는 고 령화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됐다. 사람이 떠날수 록 마을과 지역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진다. 이대로 간 다면 국가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진도의 역사와 예술 도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 는 것은 희망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정주 여건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강화해야 할 것은 공공 인프라다.

인프라는 모든 시민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 경제와 사회 활동을 위해 개인적 비용과 시간 을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지역은 외면받게 된다. 통신 ·교통·의료 등 편의 시설은 물론 홍수·기뭄·산불 등 재난 을 막는 시설까지 갖출 때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있어 가장 앞서 챙겨야 할 인프라가 있 다. 바로 수자원 시설이다. 물이 없다면 병원도, 학교 도, 공장도 돌아갈 수 없다. 특히 기후위기는 수자원 인 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극한 홍수와 가뭄이 우리 일상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이다.

진도군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작년 9 월에는 시간당 최고 112mm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150 여채가 침수됐고 1000여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반면 2022년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주민 생활 에 큰 불편이 따랐다. 강릉 가뭄 사례에서 보듯 물이 부 족하면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지역축제가 취소되며 지 역 경제 전반이 위축된다. 이는 수자원 인프라가 지역 경제를 움직이고 공동체의 생활 리듬을 지켜내는 제1 의 동력임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지사는 진도의 일상 이 멈추지 않도록 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안 정적인 물 공급을 가장 큰 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진도 군은 자체 취수원만으로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 경 조건을 가졌다. 기후위기의 불확실성이 겹치면 언 제든 물이 부족해질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진도수도지 사는 장흥에 있는 덕정정수장에서 하루 1만 t 의 광역 상수도를 끌어와 진도군에 공급한다. 여기에 진도군 내 5개 소규모 정수장에서 하루 4000 t 을 더해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진도군의 물 사용량은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비밀은 외국인 노동자와 수산물 가공업의 증가에 있 다. 2024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등록 외국인은 약 2600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 690명에서 400% 가까 이 증가한 수치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고려하 면 실제 거주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된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꾸 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이 물 사용량이 줄지 않는 이유로 추정된다.

또한 진도군의 특산물인 김 생산을 포함한 수산물 가 공 과정에도 다량의 물이 필요하다. 마른 김 설비 1기 만 해도 하루 500~800 t 의 물을 사용한다. 진도군 내 김 공장을 비롯한 수산물 가공업체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뒷받침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는 물론, 산업용 수까지 고려한 물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끊기 지 않도록 이어가겠다.

'진도진수(珍島珍水)', 보배로운 섬에 보배 같은 물.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물이 있어야 일상이 이어지 고 축제가 멈추지 않고 관광객도 찾아온다. 진도 특산물 인 김과 수산가공업도 번성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진 도의 역사와 예술을 이어갈 길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지사는 제1의 인프라라는 자부심으로 진도의 일상과 경제, 역사를 이어가는 데 함께하겠다.

#### 光则日報

편집국안내

치 부 220-0634

편 집 부 220-0649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The Kwangju Ilbo

⟨FAX 222-0195⟩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여론매체부 220-0661

디 지 털 부 220-0697

진 부 220-0693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 X 222-0195⟩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